



KIA 전력 보강... 순위 변동 예고

KIA 타이거즈가 4일간의 짧은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25일부터 삼성-KIA(대구)를 비롯해 LG-두산(잠실), SK-현대(문학), 한화-롯데(청주) 경기가 차례로 열린다. 평일과 토요일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으로 환원됐다.

올 하반기 8개 구단의 전력은 크게 '1강 4중 3약'으로 요약된다.

2위 현대에 7.5게임 앞선 선두 삼성(46승3무24패)이 포스트시즌 진출 안정권에 접어든 가운데 현대, 한화, 두산의 4강 수성 경쟁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4위 두산에 3게임차 뒤진 5위 KIA를 필두로 SK와 롯데, LG도 마지막 승부수를 노리는 형국이다.

이 가운데서도 돌풍의 핵심은 단연 KIA다.

KIA는 올 시즌 전반기를 최악의 전력으로 겨우 버텨왔다.

'특급 선발' 김진우가 부상으로 2군을 전전했고 '에이스' 강철민과 '미들맨' 정원, '슈퍼투키' 한기주 등은 아직까지 2군에 머무르고 있다.

프로야구 하반기 전망

김진우 합류 마운드 승통

용병 스카트 팀타선에 활력

오늘 삼성전...총력전 펼칠

또 심재하의 부상에 이어 이종범도 한때 저조한 성적 때문에 2군으로 강등되는 등 주전급 선수 대부분이 전반기 내내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하반기는 상황이 다르다. 김진우가 복귀했고 정원과 강철민 등도 중간간 1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불방망'이라는 비아냥마저 들었던 팀 타선도 용병 스카트 시벌의 가담으로 무게감이 실렸다. 여기에 이용규-김종국-장성호-이재주-이현곤으로 이어지는 중심타선의 집중력도 되살아나고 있다.

서정환 KIA 감독이 4강행을 자신하는 것도 이같은 전력의 상승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첫 상대가 선두 삼성이라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24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46	24	3	0.657	-	2승
2	현대	40	33	1	0.548	7.5	2승
3	한화	37	33	2	0.529	9.0	2패
4	두산	36	33	2	0.522	9.5	2패
5	KIA	32	35	3	0.478	12.5	1패
6	SK	33	42	1	0.440	15.5	1패
7	롯데	30	39	1	0.435	15.5	1승
8	LG	29	44	3	0.397	18.5	1승

양팀은 전반기 10차례 맞대결에서 4승4패2무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후반기 기선 제압에 나서는 중요한 일전인 만큼 총력전을 펴지 않을 수 없다.

KIA는 그레이싱어-전병두-김진우로 이어지는 '에이스' 삼총사를 투입,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다만 김진우가 최근 연습도중 약간의 어깨 통증을 호소, 그 자리를 박정태가 대신할 수도 있다.

이에 맞선 삼성도 브라운-하리갈라-배영수로 이어지는 최강의 선발진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 방과간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한편 KIA는 주말(28~30일)에는 광주로 이동, 다소 쉬운 상대인 SK와 3연전을 벌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4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 프로농구 여름리그 챔피언 결정 3차전 국민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에서 국민은행 정선민(오른쪽)이 삼성생명 이종애의 수비를 피해 뒤로 패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은행 '벼랑끝 탈출'

삼성생명에 2연패 뒤 1승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챔프3차전

천안 국민은행이 용인 삼성생명에 2연패 뒤 1승을 거둬 벼랑끝에서 탈출했다.

국민은행은 24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3차전에서 삼성생명에 81-73으로 승리를 거뒀다.

1,2차전을 내리 내줘 패색이 짙었던 국민은행은 3차전을 이겨 오는 26일 오후 2시 홈구장인 천안우산체육관에서 4차전을 치를 수 있게 됐다.

홈구장에서 2연승을 거둬 5년만에 챔피언 복귀를 노렸던 삼성생명은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했다.

삼성생명은 또 여자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4강 플레이오프, 챔피언 퍼펙트 우승을 노렸으나 이렇게 놓치고 말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여자축구

월드컵행 좌절

한국 여자축구가 아시아 최강 북한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 여자월드컵 출전권 확보에 실패했다.

안종관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4일 오후(한국시간) 호주 애들레이드 하인드마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후반 30분 김영애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북한에 0-1로 패했다.

한국은 이로써 조별리그 2승2패의 성적으로 조 3위를 기록해 4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으며 이번 대회에 걸려 있던 2007년 중국에서 열리는 여자월드컵 아시아 지역 출전권 3.5강 가운데 1장을 획득할 기회도 날랐다.

김병현 6승 또 실패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7·콜로라도 로키스)이 친정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 못매를 맞고 시즌 6승 달성에도 실패했다.

김병현은 24일 오전 애리조나주 퍼니스 체이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 3.2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 안타 9개를 맞고 7실점한 뒤 5-7로 뒤진 4회 2사 1, 3루에서 레이 킹으로 교체됐다.

다행히 킹이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아 김병현의 자책점은 더 이상 없었다. 시즌 7패째 위기에 있던 김병현은 팀이 9회 대거 4점을 뽑아 9-7로 역전하면서 패전도 모면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철저한 컨디션 위주... 폭넓게 팀 운영"

"4강 진입이 1차 목표입니다"

2006 프로야구 전반기를 5위로 마감한 서정환 KIA 감독(51)은 24일 광주일보와의 전반기 결산 인터뷰에서 올 시즌 4강 진입을 자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 시즌 전반기 평가는.

▲5할 승부를 못낸 게 아쉽다. 6월 이후 주전들의 풀부상이 가장 큰 약재였다. 다행히 투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줘 어려운 고비를 잘 버텨냈다고 생각한다.

-전반기 부진했던 주전 선수들의 현상대는.

▲우선 2군으로 내려간 한기주는 좀 더 지켜볼 생각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변화구가 다소 밋밋하다. 완벽하게 적응하면 1군에 올릴 계획이다.

이종범은 주장으로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성적은 가장 중요하다. 하루빨리 제 컨디션을 찾길 바랄 뿐이다.

-새로 합류한 용병 스카트와 조경환은 어떠한가.

KIA 서정환 감독



▲이제 3경기를 뛰었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 우선 팀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환은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후반기 팀 운영 방안은.

▲선수들을 폭넓게 기용할 방침이다. 전반기에는 선수들의 부상이 많아 땀질 식으로 선발진을 꾸려왔다. 하지만 새 용병 스카트도 들어왔고 부상중이던 주전급 선수들도 복귀하고 있다. 이름이나 몸값은 필요없다. 철저한 컨디션 위주로 팀을 운영하겠다.

-후반기 변수는 무엇인가.

▲선수들의 잦은 부상, 컨디션 저하 등으로 최악의 전반기를 보냈다. KIA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이제는 상승만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구단이 한 시즌에 한 차례정도 이같은 위기를 겪는다. 다른 팀들의 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팀의 4강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올 시즌 목표와 현재 팀 전력은.

▲당연히 4강 합류다. 김진우의 몸 상태가 완전하진 않지만 1군에 복귀했고 현재 2군에 있는 정원과 곧 1군에 합류할 것이다. 강철민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팀 전력에 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5일(화)

▲전국남녀중별 농구선수권 남대결승 (12:00·SBS스포츠)

▲제58회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3:00·KBS SKY SPORTS)

▲프로야구<삼성-KIA>(18:30·MBC ESPN), <롯데-한화>(16:3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50·SBS스포츠)

흉터 혼적을 지우자!

벤트락스겔은 흉터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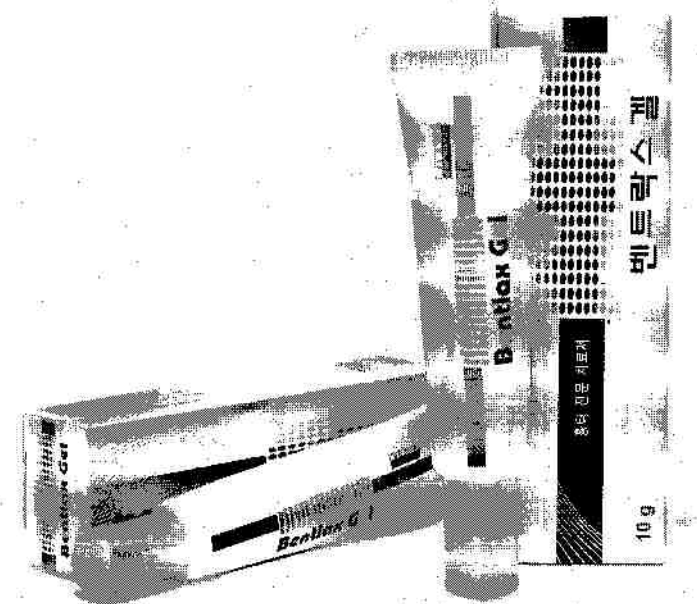


벤트락스겔로 해결하세요.

흉터치료제 벤트락스겔

간편하게 바르는 젤타입의 흉터치료제 벤트락스겔은 피부조직 깊숙히 흡수하여 오래되거나 갓생긴 크고, 작은 상처의 흉터자국을 치료해 주는 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흉터 치료제 벤트락스겔 Bentlax Gel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권유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역사와 신뢰하십시오.